

사회

“살생부 아니냐” 당혹... 침통...

학자금 대출제한 선정 전남북 대학 표정 “지역실정·자구노력 반영 안했다” 항변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자금대출 제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한 전남북지역 7개 대학들은 일제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억울해하기도 했다.

해당 대학들은 비상회의를 열어 이번 명단 발표가 대학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수시 모집 시

기에 발표한 점을 들어 너무 가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구 노력도 반영되지 않은 성급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자금 최소대출 대상으로 분류된 명칭대는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에 대해 억울하다는 판단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최소대출 그룹으로 지정된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출제한이 아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초당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산업대인 초당대가 지난 8월18일 일반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지 불과 20일 만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초당대는 “폐지되는 산업대학의 평가 결과를 신실되는 일반대학에 적용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반대 개교와 함께 항공운항계열 신설, 박사과정 신설 등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준비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대, 차대, 한의대 등 의학계열과 로스쿨까지 갖춘 사학의 명문대로 불리던 원광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자 1만7000여 재학생은 물론 동문, 대학 관계자, 지역 사회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원광대에 대한 이번 판정은 취업률

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서 기준을 밑돌고, 등록금 인상수준 등에 있어서도 타 대학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주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측은 취업률 부문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고 있다. 4년제 대학 기준은 취업률이 45%를 넘어야 하지만 원광대는 2010년 기준 41.1%에 그쳤다. 이는 교과부가 의학계열을 취업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원광대 의학계열 재학생은 1000명(재학생의 6% 이상)이 넘는데 취업률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타격을 받았다.

전남북지역 대학은 물론 하위 15%에 해당된 43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선원 생활 힘들어서...

힘든 뱃일을 참지 못한 50대 선원이 정박 중인 어선에서 스티로폼을 타고 육지로 건너가다 표류하던 중 구조됐다.

5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이

목포 선적 9.77t급 자방 어선 Y호 선원인 박씨는 힘든 선원 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새벽 2시께 바다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스티로폼 타고 탈출 신안서 3시간 표류 구조

날 새벽 5시25분께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 앞 해상에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육군 해안대를 통해 접수했다.

해경 경비정은 출동 3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그 물체는 다름 아닌 스티로폼에 몸을 의지한 채 바다에 표류에 있던 박모(51)씨로 밝혀졌다.

박씨는 썰물 때 선 밖에 있던 스티로폼을 이용해 가까운 육지로 건너가려다 심한 조류로 3시간여 동안 표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작업 중 노동에 따른 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는지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장애인보조금은 ‘눈먼 돈’

근무없는 직원 수당 빼돌린 도장애인총연합회장 구속

강진경찰은 5일 장애인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전남도장애인총연합회장 A(65)씨를 구속하고 복지관 임금을 허위 청구한 모 장애인종합복지관장 B(57)씨와 임금을 허위로 수령한 C(여·60)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약사 D(여·30)씨와 그의 어머니 E(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체장애인 복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6년 6월 강진군으로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바꾸어 사업을 위탁 시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5명의 수당 580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A씨는 장애인 정보능력배양 사업을 위탁 시행하면서 강사로 1600여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이 복지관에서 일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540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와 친분을 이용해 A씨가 운영하는 복지회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마치 장애인 일자리 상담 업무를 한 것처럼 근무 상황부를 조작해 28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같이 입건된 약사 D씨는 A씨와 알고 지내는 어머니 E씨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비염 등 가벼운 질병을 병원 처방전을 받아 오면 실제 조제 행위 없이 서류만으로 허위 조제해 10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혐의다.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5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추석맞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송편 나누기행사’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사회 광주 북구지구 회원들이 행사장에서 어려운 이웃 200세대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필로폰 국제특송 밀반입

공항 마약검색 허술... 광주경찰 4명 적발

보안 검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제 특송우편을 통해 불과 하루 만에 필로폰이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필로폰을 상송우편인 박모(38)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33·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투자 중개업을 하는 박씨는 지난 7월 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여자친구 이모(30·구속)씨와 함께 히로뽕 0.03g을 투약하는 등 지난 2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서울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성들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대포통장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g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했다.

중국 내 필로폰 공급책은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구두나 청바지 등 선물을 물품에 교묘히 히로뽕을 숨겨 인건공용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박씨의 진술로 마약류 검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항의 사정을 마약상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홍형기자 gollie@kwangju.co.kr

광주 학생부 부당정정 무려 1391건

고 3학년 전국서 세번째... 전남은 255건 적발

광주지역 고교의 3학년 학교생활 기록부(학생부) 부당정정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391건(2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255건(28개교)으로 6번째였다.

이는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고 3 학생부 부당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15개 시·도교육청(인천은 감사 중이라 제외) 중 경기도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89건)·광주(1391건)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255건이었다.

이들 학교는 근거서류 없이 학생부에 손을 대거나 정당한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교육청 자체 감사에 적

발됐다. 학생부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의 주요 서류로 활용되는 평가 자료다. 광주에서는 모두 26개교가 적발됐으며 J고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534건을 부당 정정했다.

100건 이상 학교는 K고, C고, S고였고, 28개교가 적발된 전남에서는 H고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H고는 39건, 또 다른 H고는 24건이었다.

광주의 경우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3학년 재학 중 희망진로가 바뀌거나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맞춰주기 위해 1, 2학년 때 기록된 내용을 바꾼

것이다. 간략하게 기록돼 있거나 미 기재 상태였던 독서활동란에 구체적 내용을 뒤늦게 적어준 경우는 322건이었다.

예컨대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독서를 한다’는 대목을 ‘사회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텍시운전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현재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부담만 지운 만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업용 택시기사 최저임금은 고정급”

현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택시기사에게 초과수입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한 최저임금법 6조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택시회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텍시운전자들이 지급받는 고정급을 높임으로써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현재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부담만 지운 만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갑 훔쳐 카드사 직원 사칭 비밀번호 알아내 현금 인출

서부경찰 2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5일 학원에 몰래 들어가 훔친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고모(29)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학원에서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든 지갑 오모(여·43)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 날 오후 3시20분께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 현금 9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지갑을 훔친 뒤 오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회사 직원인데 누군가 당신의 카드를 사용중이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민취 교사 택시요금 안내고 도주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택시요금 내지 않기로 해 도주하다가 붙잡힌 것도 모자라 택시 문을 찢러뜨려 경찰서행.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K(50)씨는 지난 3일 밤 11시4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이모(51)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보조석 문을 열어 도로변 기둥에 부딪히게 해 문을 찢러뜨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광주 모 고교 교사로 만취상태였던 K씨는 이날 요금 3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한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가 이씨에게 붙잡혀 택시에 태워진 뒤 파출소에 향하던 중 또 다시 도망치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9급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연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중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평일 10:00~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평일 10:00~18:00 (2개월 완성)

법원사기보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지방직 소빙직 (전면)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명품 '강력면담'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79급 검찰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9급 야간반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농업직/기술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사회복지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부시반 (법원직)
평일 9:00~18:00 (2개월 완성)
평일 19:00~22:00 (2개월 완성)

개강 10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